



보도자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6.3.16(수)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Cultural Identity

- 작품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

- ▶ 전시명 : Cultural Identity
- ▶ 전시기간 : 2016년 3월 25일(금) - 4월 7일(목)
- ▶ 장소 :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개막식 : 2016년 3월 25일(금) 저녁 7-9시
- ▶ 참여작가 : 테레사 황, 마크 현, 김영신, 이정민, La Somine, 자넷 유
- ▶ 문의 : LA 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최희선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이하 LA문화원)은 2016년 3월 25일(월)부터 4월7일(목)까지 LA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Cultural Identity> 라는 타이틀로 그룹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5명의 LA 활동작가와 1명의 재프랑스작가로 구성되어진 그룹전으로, 우리 모두는 해외에 거주하며 이방인의 삶을 살고있다.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작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을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한국의 이미지가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LA문화원 김낙중원장은 언급했다.

동포 1.5세 혹은 2세작가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살면서, 성장과정에서 겪는 이중문화의 갈등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교포 1세작가들은 자신이 자라온 고국을 그리워하고, 마음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정서를 작품 속에 표현하거나, 미국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6명의 작가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인 이번 전시는 한인사회와 타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함께 나누고 즐기기를 바라며 기획하였다.



Janet yoo
Bow 2 24x36 Inch
Acrylic on Canvas



Young Shin Kim
Blue Velvet 15x9x3.5inch
Dark Clay, White Slip,
Reduction Firing



La Somine
Sonona Velvet 27x35cm
Acrylic on canvas



Theresa Hwang
Flight 16x20inch
 Ostrich Egg, Austrian Rhinestone, Plated Stand,
 Velvet, Plated Filigree, Italian Plate



MeeJung Lee
Chicken 48x48inch
 Acrylic, Mixed Media on Canvas



Mark Hyun 16x48 inch
Sand Dune after Gusty Wind

김영신 : 토속적이며,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지닌 한국 전통 분청의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도자기를 구워내는 김영신 작가는 현재 플러튼에 위치한 머켄텔러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강의하고 있다.

이미정 : 걱정적인 분노와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인간의 삶의 패턴을 작품 속에 보여준다. 특히 한지를 사용하여 덧 붙이고 다시 칠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일상의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La Somine : 재불작가로 작가로서 한국인의 전통을 잊지않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장승 두 쌍을 남자강아지, 여자강아지로 바꾼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자넷 유: 재미동포 2세로 태어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않고 미국인으로, Korean-American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미국인으로서 사라간다는 것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표현하여 놓았다.

테레사황: 20여년 넘게 알과 함께했다. 오리알, 타조알, 리아알 등 다양한 알들을 갈고 자르고, 붙이고.. 마지막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알들 처럼 인생도 갈고, 닦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크현: 렌즈 속에는 언제나 자연을 표현하고자 투쟁한다. 특히 보는 장소, 보는 시각, 보는이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데스벨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작은 인간인 우리는 그저 시간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부드럽게 석양에 비치는 모래 능선을 아름다운 여인의 치마폭으로 보인다.